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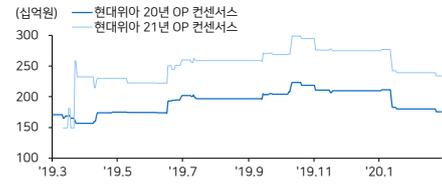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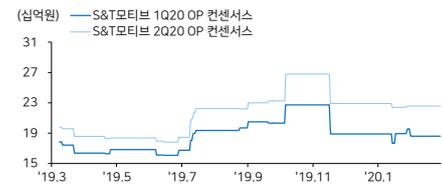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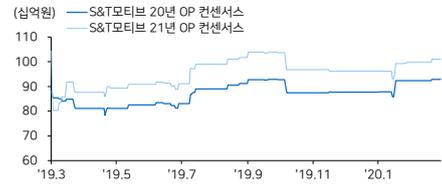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해외의 공장 닫고, 국내선 6개월치 주문 밀려...현대·기아차 고민 (파이낸셜뉴스)

현대·기아차는 미국 공장 가동중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러시아·터키 등지의 공장도 '셋다문'에 들어가면서 해외 생산거점은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멈춰섰다. <https://bit.ly/2vXlB3>

테슬라·벤츠 합을 제네시스 첫 '전기차 전용 SUV' 내년 6월 양산 (전자신문)

현대그룹이 제네시스가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와 경쟁할 첫 전기차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내년 6월 양산한다. 기존 차량을 기반으로 한 파생 모델이 아닌 전기차만을 위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집약한 독자 모델. <https://bit.ly/3bzbTgJ>

현대모비스, 의왕에 '미래차 연구센터' 짓는다 (조선신문)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의왕에 대규모 연구소를 짓고 미래차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기로 함. 현대모비스는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센터 내에 현대모비스 전용 4만㎡ 유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 <https://bit.ly/2yanP2P>

폭스바겐, 1주일에 20억유로 손실...차업계 경영난 악화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판매 급감에 이어 막대한 고정지출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에 몰린.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VW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미국의 생산과 판매가 멈추면서 1주일에 20억유로씩을 쏟아붓고 있음. <https://bit.ly/2yjcTQG>

'이 없으면 믿음으로 버틴다'... 현대·기아차 내수 '총력전' (디지털타임스)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앞세워 국내 공장 가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가동중단으로 몸살을 앓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완성차 업체와 대비. <https://bit.ly/2QR3VjW>

제네시스 3세대 G80, 30일 출시 확정 (ZD넷코리아)

제네시스가 3세대 G80 출시 일정을 이달 30일로 확정. 제네시스는 20일 출시 일정을 담은 초청장을 국내 언론 매체 대상으로 전송. 출시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 <https://bit.ly/3aEFXQE>

기아차 박한우 사장 퇴임...후임에 송호성 부사장 (조선비즈)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물러남. 2014년 11월 선임 이후 5년 5개월 만. 일각에서는 새로 나온 쏘렌토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자원이란 해석이 나올. <https://bit.ly/2WUqb0a>

China's auto industry wastes no time coaxing drivers back to showrooms after lockdown - CAN

China's auto industry has gone from zero to sixty in its post-pandemic campaign drive, with manufacturers and dealers quick to woo back lockdown-weary consumers through campaigns as unusual as a make-up-promoting personality touting car leasing. <https://bit.ly/2JmRw2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